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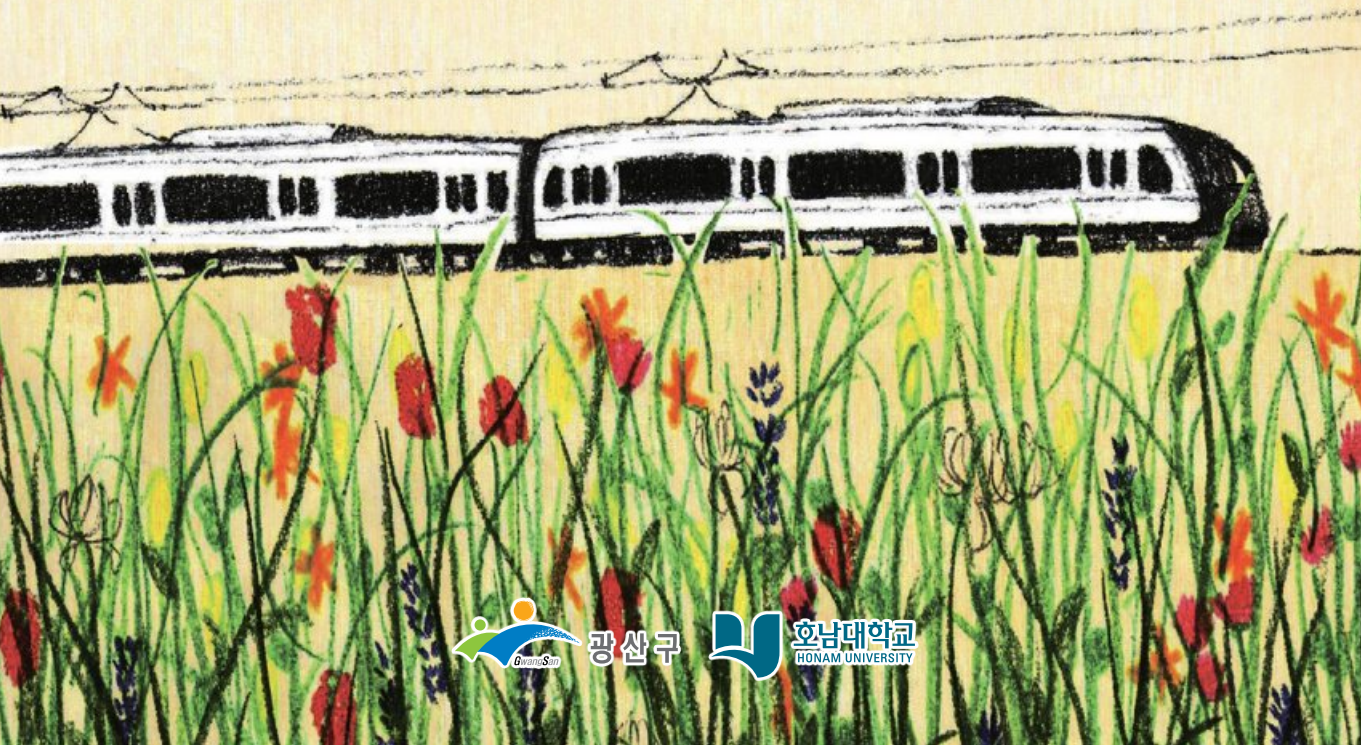


출발합니다!

Let's Depart!

글 ODA Gada 그림 조아름

Author ODA Gada Illustrator Cho AReum



광산구



호남대학교
HONAM UNIVERSITY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열차에 타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와이파이가 뜹니다.

This is Emotion Train that guarantees you a safe travel.

Once you get on it, the emotion Wi-Fi will appear and show your emotions.



글 ODA Gada Author ODA Gada

광산구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ODA Gada의 협업으로,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건위생교육, 성인지 교육을 주제로 한 책에 이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

Having been written after books about person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education, this book intends to comfort people who are weary and tired in a modern day life. It is a collaborative work done by the Education Policy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ivision, Gwangsan-gu Office and ODA Gada club comprised of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그림 조아름 Illustrator Cho AReum

서울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기관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으며, 한때 취재기자로 일했다. 작아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짓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린 책으로는 『사랑해, 꼭꼭꼭』 등이 있다.

She 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Women's University, studied picture books at Kokdu, and once worked as a reporter. She writes picture books dreaming of a world that can protect precious things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Her books include 《Will You Be My Mom and Dad?》, 《Baby Turtle Clover》 and illustrated books such as 《I Love You》.

출발합니다!

Let's Depart!

글 ODA Gada 그림 조아름

Author ODA Gada Illustrator Cho AReum

출발합니다!

© 광산구, ODA Gada, 조아름, 2021

초판 2021년 10월 20일

기획 및 글 광산구·호남대학교

그림 조아름

편집 및 디자인 책숲놀이터

영문 번역 및 감수 한국번역통역재단

펴낸이 광산구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대표전화 062-960-8536(교육지원과 박진)

Let's Depart!

© Gwangsan-gu, ODA Gada, Cho AReum, 2021

First Edition October 30, 2021

Planning and Writing Gwangsan-gu · Honam University

Illustrator Cho AR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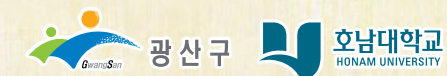
Editing and Design Bookforest

English Translation Korea Translation & Interpretation

Publisher Gwangsan-gu

Address 15, Gwangsan-ro 29beon-gil, Gwangsan-gu, Gwangju

Main Phone 062-960-8536(Education Support Division of Gwangsan-gu Office)



“승객 여러분은 탑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Dear passengers, please be prepared to board.”





‘음~, 이게 좋겠다.’

유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길이다.

‘오늘도 엉망진창이야. 휴... 그래도 이 사진을 올리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겠지?’

‘Well, this will be good.’

Yuri just had dinner with friends.

‘Another messy day today. Oooff ... Maybe I’ll look
good if I upload this picture.’



꽃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보였다.
'모두 행복해 보여. 나도 꽃 한 다발 살 걸 그랬나 봐.'
Passengers holding flowers appeared.
'They all look so happy. I should have bought a bouquet too.'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올라탔다.
발갡게 얼굴이 상기된 그녀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

Just as the train door was about to close, someone rushed on board.
She sat next to Yuri with a flushed face.



“애, 나 오늘 드디어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가 끝나자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 네...”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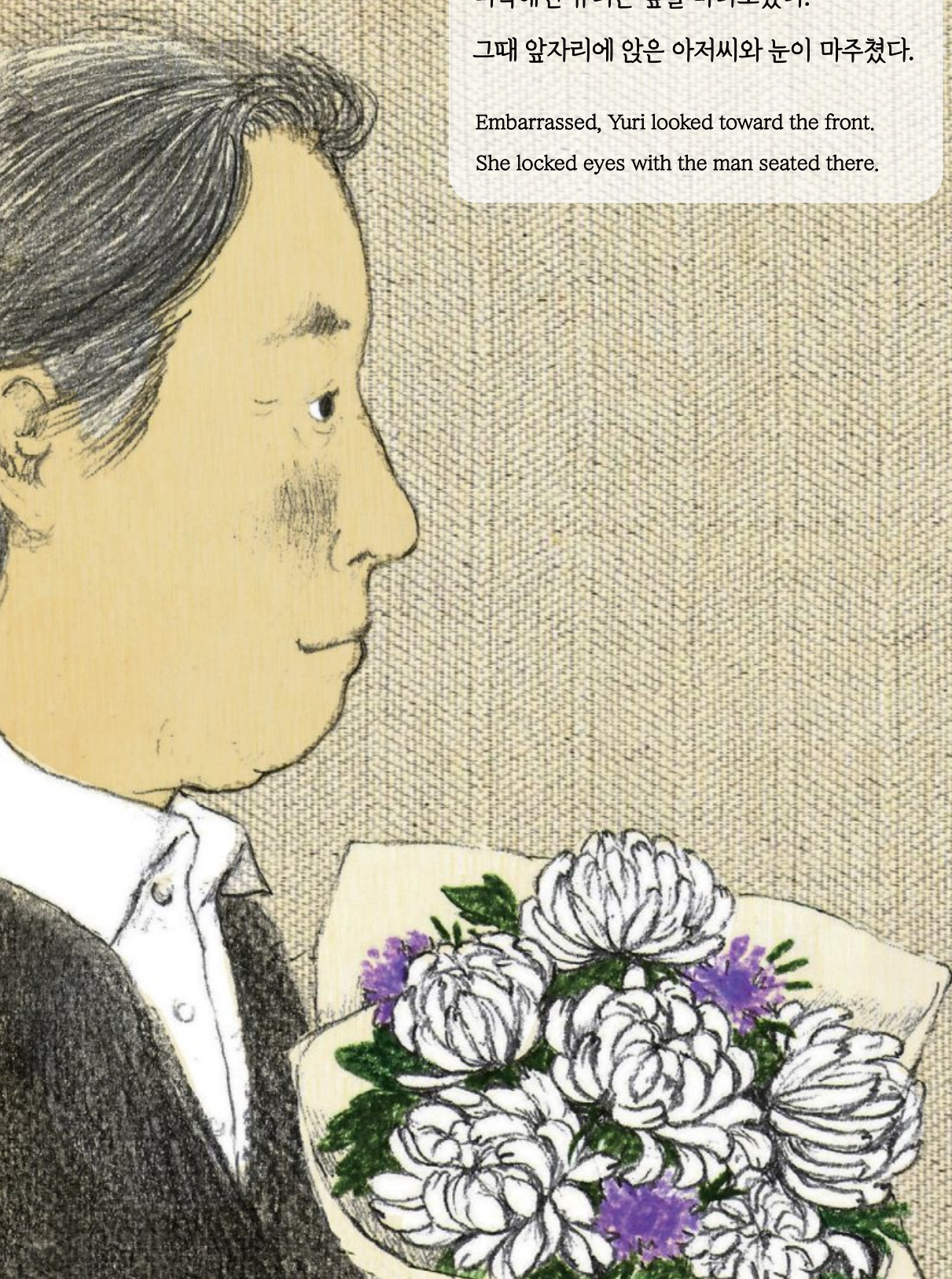
“I’m gonna confess to him today. I feel like I will be exploded.”
She started talking to someone on her phone.

Yuri casually started a conversation after she hung up.
“Those flowers are really pretty. You must have had a nice day today.”
“Oh, yes ...” She coolly answered, turning away from her.



머쓱해진 유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Embarrassed, Yuri looked toward the front.
She locked eyes with the man seated there.



“아저씨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저씨는 유리를 보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You’re also holding a flower bouquet, so
you must have had a good day today too.”
she told the man. The man looked at Yuri
and smiled mysteriously.





“난 얼마 전에 하늘로 떠난 몽이를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강아지 몽이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어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I am on my way to honor my dog, Mong, who went to heaven a while ago. He was a long time friend and part of my family. I miss him even more today. I feel so sorry for not having taken better care of him.”
Yuri was bewildered by the man’s sudden confession.

‘What shall I say then?’ She asked herself.





“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한 만큼 슬픔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다고요. 몽이도 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여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몽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뎌야겠어요.”

“Oh, my friend went through a similar loss recently.” spoke the person seated next to Yuri.

“She said that the happier and more precious her memories of her pet are, the sadder she feels. Mong must happily remember his time with you.”

The man nodded in acknowledgement of the lady’s heartfel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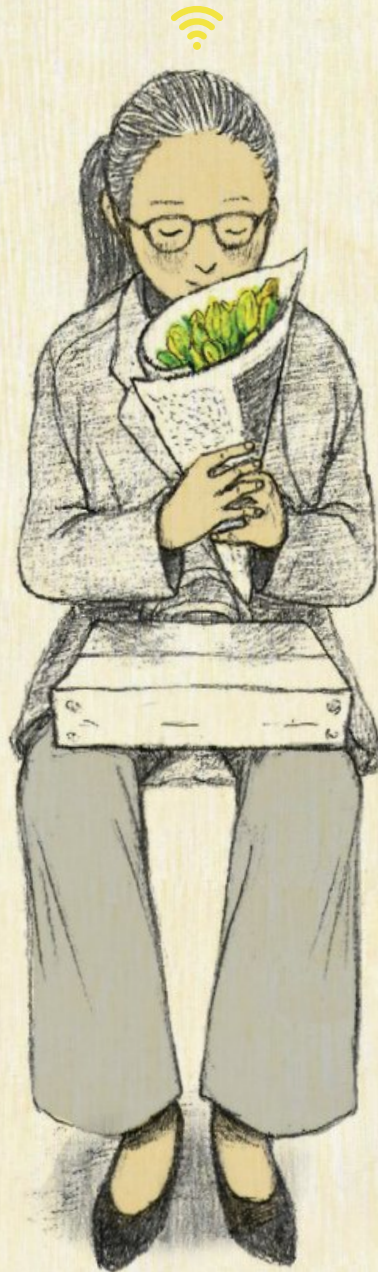
“You’re right. I should be happy enough with my memories of Mong.”

아저씨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꽃향기가 좋네요.”

“퇴근하는 길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마침 남아 있던 꽃다발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



The man looked at the freesia bouquet.

“The flowers smell nice.”

“I met an old woman who was selling flowers on my way from work. The remaining flowers were just the ones that my mother likes the most.”



유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에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도 꽃을 많이 사셨네요.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

Wanting to join the conversation, Yuri spoke to the man beside her.

“You also bought many flowers. I’m sure the person receiving them will be very happy!”

하지만 유리의 생각과 달리 아저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꽃을 팔아요. 이 꽃을 다 팔았어야 했는데… 허탕 쳤죠.
오늘따라 더 힘이 드네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Yuri didn't expect the man to answer sadly, "I sell flowers.
I should have sold them all, but ... I failed today.
It was even more difficult than before. I worked so hard to sell
for my family, but I am so incompet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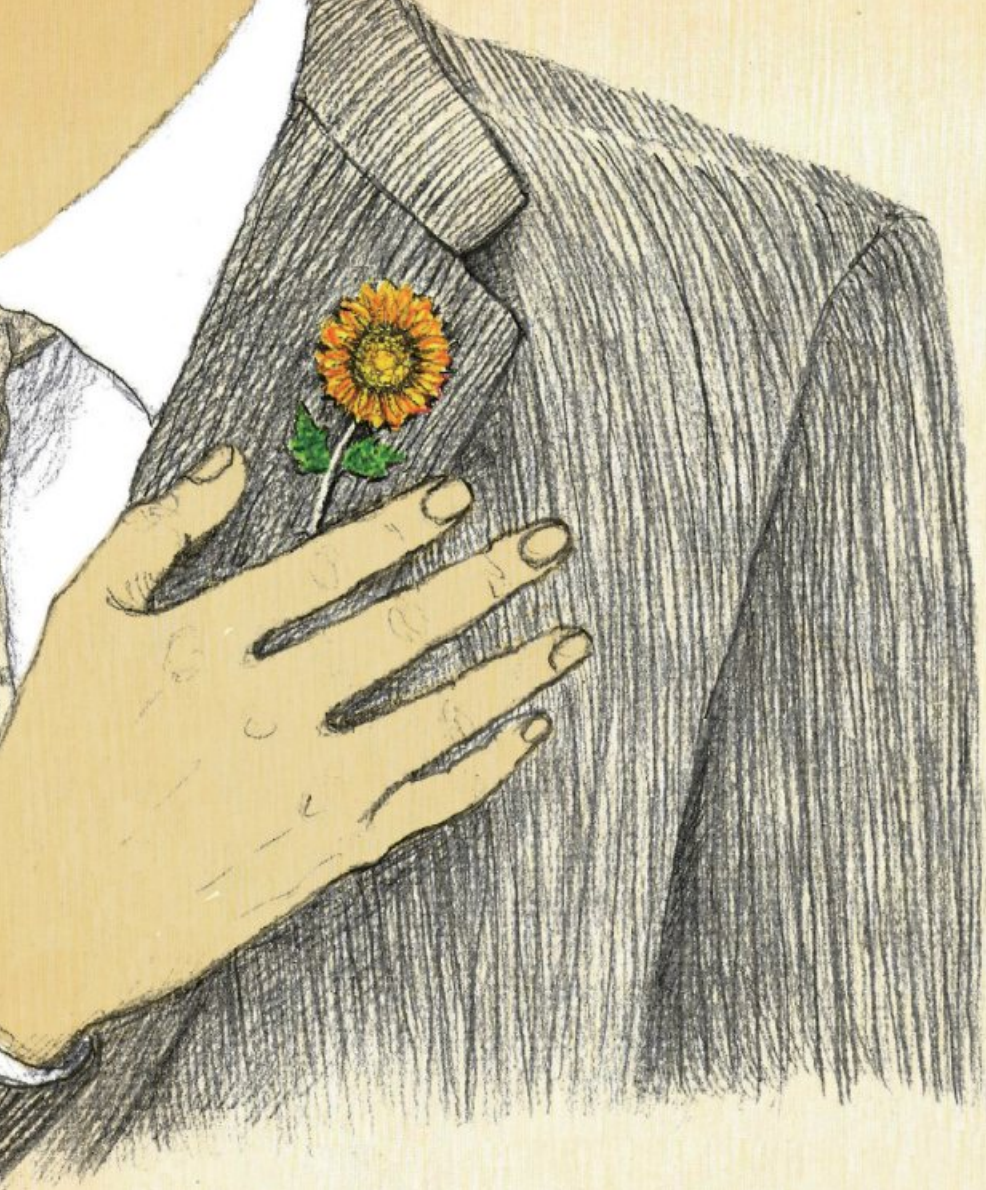




유리는 아저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Yuri did not know how to console the man,
She could not but look at him.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청년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 전 오늘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꽃 브로치도 달았는데, 휴...”

A young man who had been quietly listening to the man's story spoke up.

“Sir, I had an interview today. I don't think I did well. Even if I try to be positive,
I keep feeling anxious anyway. I even wore a flower pin to look good for the
interviewers, but ... grrrr ...”



아저씨가 살며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아저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띵띵 울렸다.

The man patted the young man's shoulder.

Then, his mobile phone dinged with a message.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The man stared at the phone for a while before his eyes filled with tears.

“Sir, what’s wrong? Did something happen?”



아버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 주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있었다.

The man showed his mobile phone to the young man. Onscreen was

a picture of his son grinning and holding an award certificate.



아저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꽃 몇 개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
“아들의 문자를 받기 전에는 팔지 못한 꽃들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볍네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이 꽃을 받고 힘내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청년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The man gave the young man a few flowers from his bouquet.
“Before receiving this text message from my son, the flowers
that I wasn’t able to sell felt heavy, but now, they feel so light.
My family probably doesn’t want me to feel so sad.
I hope you also gain strength from these flowers.
I hope something nice happens to you too.”
The young man thanked him.



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꽃을 들고 있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도 있었네.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왜 애써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 거지?’

유리는 꽃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어? 아저씨의 감정 와이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

‘I thought people were all happy because they were holding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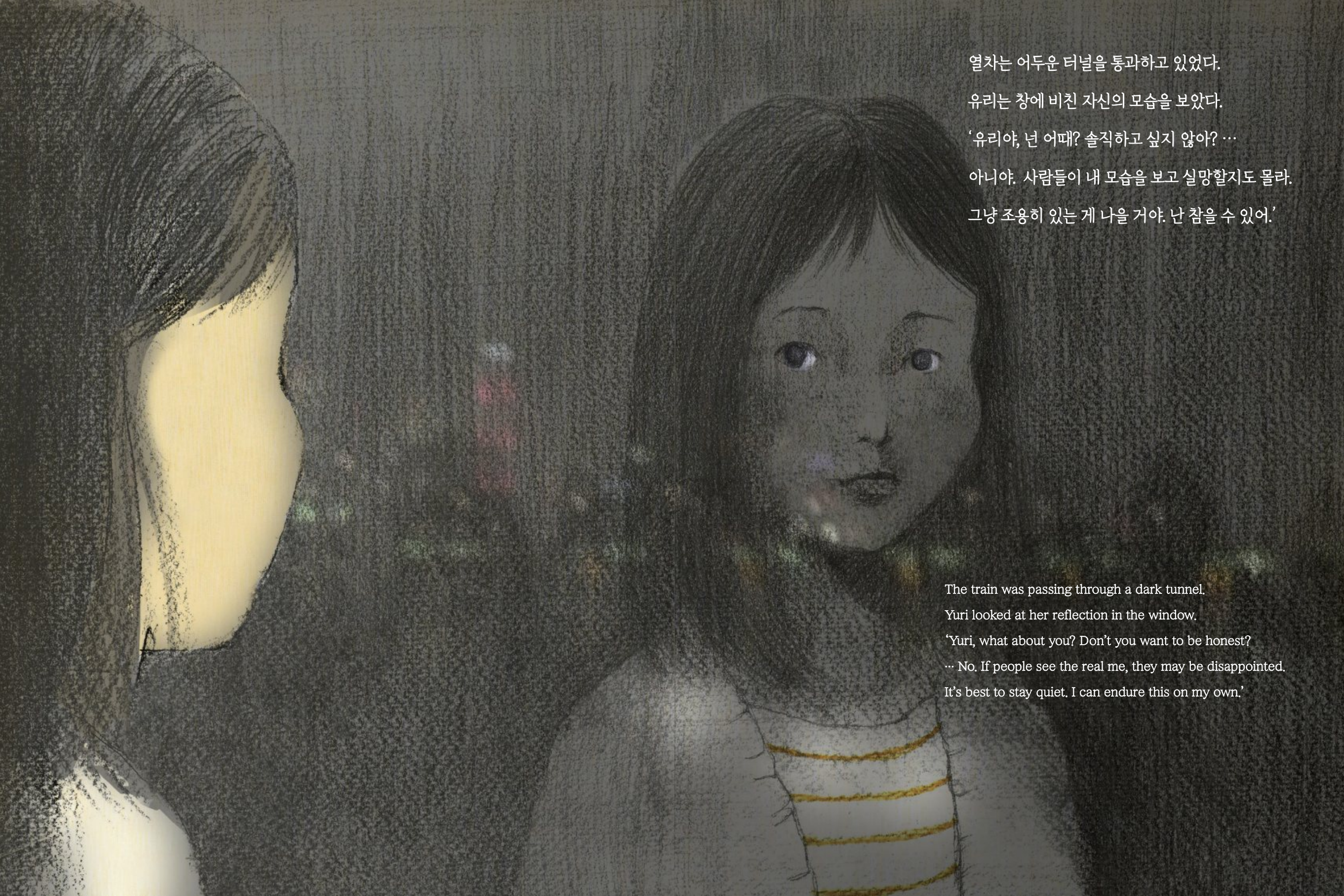
But these people are going through a rougher time than I am.

Why couldn't I be as honest as them? Why did I try so hard to fake my happiness?’ Yuri thought.

She looked at the flower vendor in surprise.

‘Oh? The man's emotion Wi-Fi color has completely changed!’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유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리야, 넌 어때? 솔직하고 싶지 않아? ...
아니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The train was passing through a dark tunnel.
Yuri looked at her reflection in the window.
'Yuri, what about you? Don't you want to be honest?
... No. If people see the real me, they may be disappointed.
It's best to stay quiet. I can endure this on my own.'



그때 청년이 유리에 꽃 한 송이를 쓱 내밀었다.

“난 아직 면접에 합격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응원의 꽃다발을 받으니, 이 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꽃을 나누어 주었다.

유리는 문득 청년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렇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

At that moment, the young man gave a flower to Yuri.

“I still don’t know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d that makes me uneasy. But receiving a flower bouquet from someone who wanted to cheer me up makes me want to share one with someone else too. Then, I think I’ll feel happier.”

The young man also gave flowers to the others.

Yuri suddenly envied him.

‘I want to be honest like him. I want to stop masking my emotions.’



유리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청년이 준 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유리의 머릿속에 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Yuri gathered her bag and got ready to get off the
train. She held the flower she got from the young man
as if it were precious. Each of the faces of the people
holding flowers passed through her mind.

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Yuri then realized that physical looks are not important, and one must be honest with one's emotions to empathize with others.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정열차를 함께 타 보실래요?

This is Emotion Train that guarantees you a safe travel.

Would you like a ride, too?





[기획의도]

〈출발합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 프로젝트’의 네 번째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같은 색을 보고도 각기 다른 것을 연상합니다. 빨간색을 보고 맛있는 떡볶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열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을 보며 누군가는 ‘우울’의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같은 색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듯,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같아 보인다고 해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ODA가다』 청년들은 ‘감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좋고 나쁨을 특정 짓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타인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감정 속 솔직한 나를 찾기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감정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면서 치유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감정도 소중히 아껴줘야 하고, 시간을 들여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주인공 ‘유리’는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도 서툰다. 현재를 사는 청년들이 주인공 ‘유리’를 통해 열차 내 ‘꽃’을 들고 있는 여러 승객들 속에서 감정에 ‘직면’하고 ‘공감’을 연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 와이파이를 통해 감정을 되돌아보며 표현해 보고, 열차 안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 공감과 위로의 한마디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와이파이 색을 바꾸게 할지도 모릅니다.

[감수자의 한마디]

SNS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속이는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감정열차에 탄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는 주인공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감정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창엽(사)한국민주평화교육원 교육팀장

공동 저자인 대학생들이 이 책을 만들면서 오갔던 감정들이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 그림책을 보며 오늘 하루 내 감정은 어떤 색이었나 살피고 보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렵고도 오묘한 감정을 잘 쓰고 표현해 주셨네요.

김일도(비폭력평화교육센터 활동가)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셨네요. 임상 현장의 내담자들도 주인공 유리처럼 SNS에서는 행복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이라는 매체를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감정 와이파이가 변해가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이 된다는 주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박은혜(해움심리상담 연구소장)

열 길 깊은 물 속보다 더 알기 어렵고, 스스로 감지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의 ‘감정’을 그림책이라는 아름다운 매체와 일상 속 에피소드라는 그물을 던져 잘 포착해 낸 작품입니다. 따뜻한 그림과 함께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었네요.

김천웅(광산구 야호센터 교육위원)

흑백 느낌의 그림 속에서 색을 보이는 감정과 꽃들, 이 책 안에서 솔직한 것은 감정과 꽃뿐이다. 우리는 솔직할 때 자기만의 색을 내보일 수 있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있는 나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일까? 내 감정 와이파이는 어떤 색일까?

강한솔(협동조합 놀자 대표)

인생이라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감정을 함께 싣고 달려요. 그 열차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감정의 열차를 타고 출발! 당신의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까요? 고개 돌려 바라보세요.

차예지(예지책방 대표)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품지 못해, 이전보다 더 고독하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많은 이들에게 “솔직해도 돼”라며 푸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따뜻한 책입니다.

박주경(호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감정 와이파이 안내문]

‘빨주노초파남보’.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 7가지 무지개 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저마다 다른 색 정의가 내려지겠지요?

〈출발합니다〉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감정 와이파이로 표현하기 위해 7가지 무지개 색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감정 색깔은 여러분만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투명색

- 감정 : 직면하지 못함.
- 느낌 : 내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느낌



빨간색

- 감정 : 사랑, 행복
- 느낌 :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주황색

- 감정 : 화남
- 느낌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머리가 서는 느낌



노란색

- 감정 : 설렘
- 느낌 :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



초록색

- 감정 : 평안, 평온
- 느낌 : 울창한 나무가 품어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파란색

- 감정 : 슬픔
- 느낌 :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



남색

- 감정 : 우울
- 느낌 : 마음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



보라색

- 감정 : 걱정, 불안
- 느낌 :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느낌

참여자

[스토리 제작] 김성은, 신민주, 양혜지, 윤은혜,
이효리, 장현정, 정민주, 조혜성, 최은빈

[프로젝트 참여] 김서영, 김어진, 김연정,
문정혜, 박유영, 봉미송, 윤다영, 정영은,
하재은

공동기획

광산구 교육지원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장윤경 교수)
(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노미숙 대표)

감수

이창엽((사)한국민주평화교육원 교육팀장)
김일도(비폭력평화교육센터 활동가)
박은혜(혜음심리상담 연구소장)
김천웅(광산구 야호센터 교육팀장)
강한솔(협동조합 놀자 대표)
차예지(예지책방 대표)
박주경(호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Participants

[Story] Kim Seong Eun, Shin Min Ju, Yang Hye Ji, Yun Eun Hye,
Lee Hyo Ri, Jang Hyun Jung, Jeong Min Joo, Cho Hye Sung,
Choi Eun Bin

[Project] Kim Seo Yeong, Kim Ua Jin, Kim Yeon Jeong, Mun JeongHye,
Park Yu Yeong, Bong Mi Song, Yun DaYoung, Jeong Young Eun,
Ha Jae Eun

Joint Planning

Education Support Division of Gwangsan-gu Offic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Prof., Jang Younkyoung)
Korea Association for Picture Book Culture (President No Misuk)

Supervision

Lee Changyup (Korea Democratic peace education center,
manager for education)
Kim Ildo (Nonviolence education center activist)
Park Eunhye (President of Hyeyum Center)
Kim Chun eung (YAHU Center,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Kang Hansol (President of Nol-ja)
Cha Yae jee (President of Yae jee Bookstore)
Park Joo Kyung (Prof., Department of English, Honam University)



+ 이 책의 공동저작권은 광산구, 호남대학교 장윤경 교수 외 학생 18명, 조아름, 책숲놀이터에
있습니다.
+ The copyright of this book is co-owned by Gwangsan-gu, Professor Jang Younkyoung
and 18 students of Honam University, Cho AReum and Bookforest.

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Yuri then realized that physical looks are not important, and one must be honest with one's emotions to empathize with others.

